

# “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모두 다 몰라”

### 최순실, 국조특위 비공개 접견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불리한 질문에 ‘모르쇠’ 일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은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모두 모른다고 밝히는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순실은 이날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가량 현장촬영 등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가 결국 접견조사를 수용, 3시부터 2시30분 가량 서울구치소 수감실에서 일종의 약식 청문회를 가졌다.

여야 특위위원들에 따르면 최순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모두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즈니스’와 K스포츠재단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설립 아이디어를 최순실이 내고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냈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최순실은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기소됐는데 (검찰에서) 인정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에 관해서도 “딸은 이화여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대 교수들에게 6개의 소공백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대 부정입학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청문회가 2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 있다.

순실은 고개를 푹바라 들고 “그게 왜 부정 입학이냐며 항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독일에 8,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독일에 재산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 남편 정운화와 함께 ‘유베리’라는 회사를 왜 설립했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회사다. 처음 듣는다”고 부인했다.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와 관련해 “나는 노트북을 사용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2012년에 태블릿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순실은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와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당일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 4월16일 그 일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웃을 만든 것으로 알

려진 이상실을 언제부터 운영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누구의 돈으로 운영했느냐는 질문에 최순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본인이 죽어 서라도 박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냐는 질문에 최순실은 답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최순실을 ‘최 원장’으로 부른 사실도 확인됐다.

최순실은 이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증신형을 받을 각오가 돼있다”는 발언을 해 반쪽을 샀다. /뉴스1

## 정운천, 새누리당 탈당 공식 천명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정 의원은 26일 “오직 전북 도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32년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신 도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받들지 못하고, 20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만에 새누리당을 떠나게 되어 작

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더 이상 새누리당의 틀에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 수 없다고 판단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일으켜, 공정한 시장경제,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며 책임을 지는 보수정당 탄생에 앞장서겠다”며 신당 창당의 의지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호남의 보수정당을 새롭게 재창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전북발전을 위한 새만금 사업, 탄소산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힘 있는 추진과 예산확보에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 탈당을 결의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7일 탈당계 제출을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선출과 원내 교섭단체 등록 등 구체적인 창당 작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김동철 “필요하면 비박계와 협력”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필요할 경우 새누리당 비박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력의 의미는 ‘세력 간 통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고 더 큰 악을 척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비박계의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지율이 높고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한 비박계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합당 등 세력 간 통합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개헌 추진을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당내 계파 패권주의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여당을 거수기로 만드는 낡은 정치체제인 만큼 이번에만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며 “거대 양당 구조는 대화와 협치를 어렵게 하는 구조로 선거구제의 손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1

# 민주당 · 국민의당, 반기문 의혹에 뚜렷한 시각차

### 민주당, 반기문 집중공격... 국민의당, 공식 입장 표명 자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6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약 10년 전에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반 총장을 내년 대선에서의 경쟁자로 상정하고 의혹 제기 초반부터 맹공을 퍼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반 총장 영입 내지 연대를 고려하고 있는 탓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진문’ 최인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반 총장 거액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최 최고위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하는 촛불민심의 가장 큰 이유는 정경유착이었다”며 “국민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 궁금한 게 아니라 현재 유

엔총장이자 대통령 후보에 뜻이 있는 분이 불법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반 총장을 공격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기동민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악의적 보도’, ‘검증이 아니라 음해’, ‘일면식도 없다’며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반 총장을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반 총장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26일에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반 총장을 배려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제기를 했으니 반 총장 측에서 해명했다고 하

더라도 만약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반 총장 스스로 위해서도 적극적인 해명 혹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 총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반 총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이번 의혹 제기를 반 총장에 대한 검증 차원으로 봤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근거 없는 폭로나 검증은 밝은 정치, 깨끗한 대통령 선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 총장에 대한 공세가 너거티브 정치공세를 위한 것이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도 반 총장에 대한 견제시리를 드러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아방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 총장이 이번 의혹 역시 스리슬쩍 빠져나가려한다면 불신의 아이러니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뉴스1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야당과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호남이 지역구인 자신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중심이 됐을 때 대선승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경쟁 중인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친안철수계에다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또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친박 세력과 민주당 친문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내려놓고 담장을 낮추며 더 넓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당이 제3세대 정계개편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대개혁과 개혁에 동의하는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당의 경계를 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플랫폼 정당이 돼야 정권교체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